

야외 러닝으로 면역력 증가 vs 코로나 감염 무방비

운동하는 2030 딜레마

러닝크루 정규모임 중단됐지만 '야외 진행' 일부모임 러닝 진행중
땀차고 불편해 마스크 안하기도

피트니스센터 손님 3분의1로 줄어
손세정제만 비치, 대처 없는곳도
땀 등 체액 노출엔 경각심 없어

평소 운동을 즐기는 권 씨(32세, 서울 영등포구)는 고민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운동을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매주 즐기던 A 러닝크루도 한동안은 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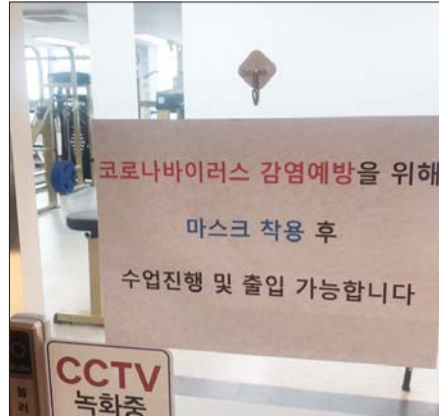
지난 2월 19일 여의도 공원에서 한 러닝크루원들이 정규세션을 통해 야외 러닝을 즐기고 있다. 8명의 그룹원 중 2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두성 제공

러닝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몸이 찌뿌둥한 그는 동네 B피트니스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면역력 올리려다 코로나19 감염될라

운동을 즐기는 일부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다.

서울지역 일부 러닝 크루의 정규 세션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러닝 모임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구를 붙인 피트니스센터. /조효정 기자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야외에서 진행 된다는 점, 서울에서는 지역감염이 심하지 않다는 점,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 운동한다는 점이 이유다.

문제는 대부분의 러너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령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을 시작하더라도, 장시간 러닝할 경우 마스크에 수분이 차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러닝 크루원인 이 씨(27세, 서울 마포구)는 "마스크에 땀이나 침이 금방 차서 너무 불편하다. 또 야외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걱정이 덜하다"고 말했다.

다른 크루원인 김 씨(35세, 서울 구로구)는 "나 혼자 마스크를 끼면 유난인 거 같아서 마스크를 착용했다가도 괜히 벗게 된다. 손 세정제도 없고 특별한 조치가 없다 보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한동안은 러닝 세션에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털어놨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시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만 입장 받기도 한다. 그러나 손 세정제만은 비치하고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는 센터가 대다수이다.

매일 헬스장에 출석한다는 신 씨

(33세, 서울 동작구)는 "헬스 머신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땀에 쉽게 노출된다. 체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데 여기에 운동하러 오는 대부분이 건강한 청년이다 보니 경각심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밝혔다.

◆마라톤대회 주최 여부에 혼란 겪기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함에 따라 2~4월에 계획된 마라톤 대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오는 3월 29일 열릴 예정이던 함천빛꽃마라톤대회, 4월 5일 개최할 예정인 '제18회 영주시소백산마라톤대회' 등 약 50여 개의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3월부터 진행하려던 동아오츠카포카리스웨트 러닝크루 활동도 오는 8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3월 22일 개최 예정인 서울 국제마라톤은 2월 24일까지 취소 환불 신청을 받고 이후에 일정에 따라 대회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러너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

3월 29일에 열리는 전남 구례 빛꽃레이스는 러너들 사이에서 낭담처럼 '희소한 코로나19 청정지역 마라톤 대회'라며 주목받고 있다.

대회 연기 및 취소로 환불 비용 관련한 불만에 일부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 대회가 한달 이상 남으면 대부분 대회 주최 측은 100% 비용을 환불해 주지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참가비를 50%만 환불하거나 전혀 환불해주지 않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2월 9일 예정이었던 2020 동계마라톤대회(주최 한국마라톤협회)에 참가하려던 문 씨(28, 서울 용산구)는 "대회 취소 마감일이 1월 28일까지였는데, 해당 날짜가 지난 2월 5일에 대회를 연기하겠다고 공지가 올라왔다.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결정해 놓고 참가비의 50%만 환불해 준다고 해서 불만이 많다"고 항의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한국기자협회 일원으로,
正道를 걷는
당당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metro 경제

비상시 임직원들 원격접속 금융사, 재택근무 '이상無'

금융위, 서비스 중단없게 선제조치
코로나19에 일반 임직원 규제완화

앞으로 금융회사의 일반 임직원은 코로나19관련 비상상황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통신망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망분리하고,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까지 규제를 완화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체근무

자-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센터를 이원화하고, IT부문과 자본시장본부는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ICT 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하고, 우리은행은 남산타워와 서울연수원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대체사업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